

시나리오

제목	배리어프리, 모두를 위한 기술의 발전
내용	
<p>“아침 8시입니다! 일어나야 해요!”</p> <p>A씨는 반려 AI 강아지 베틀이 손을 핥으며 깨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왼 손바닥에서 포근하게 느껴지는 베틀의 털을 쓰다듬으며 A씨는 자동으로 열린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p> <p>“오늘 정오에는 C와 잡아둔 약속이 있어요. 장소는 한식집, 걸어서 45분, 퍼스널 모빌리티 사용 15분, 자차 사용하여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원하는 이동 방법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일정을 다시 안내해드릴게요.”</p> <p>베틀은 닿아있는 A씨의 손을 통해 생체리듬을 확인하고 완전히 기상한 것을 파악하자 미리 설정되어있던 일정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A씨는 베틀이 설명해주는 일정을 속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며 준비를 시작하였다. A씨가 화장실로 향하는 것을 확인한 베틀은 A씨의 주변을 돌며 애교를 부리다 A씨가 입고 나갈 옷을 꺼내놓기 위해 발길을 돌렸다.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온 것을 센서가 인식하자 A씨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샤워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해 두었다. “아픈 부분은 따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A씨는 작은 건강 진단 AI에게 진단을 먼저 받고는 했다. 아픈 부분이 다시 생길 수도 있을뿐더러, 다른 기술들이 발전하긴 하였어도 큰 병을 고치기에는 많은 돈이 들었기에 미리 예방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편이었다.</p> <p>“오늘은 PM(퍼스널 모빌리티)를 타고 이동할게, 베틀.”</p> <p>“네, 오늘 12시의 기온은 32도로 더울 예정이니 그에 맞는 옷으로 준비해드릴게요.”</p> <p>베틀이 옷장 앞에서 걸어 다니는 발걸음 소리를 배경으로 A씨는 자동으로 씻겨주는 기계에 몸을 맡겼다. 시간이 흘러서 나가야 할 시간이 되자 A씨는 베틀이 준비해 놓은 옷을 갈아 입고, 새롭게 업데이트된 스마트 지도가 담긴 IS(IT sticker)를 귀밑에 붙이고 집을 나섰다.</p> <p>IS에서 울리며 알려주는 길을 따라 A씨는 아파트 밖으로 나왔고, 바로 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베틀이 예약해 둔 무인 이동이 가능한 모빌리티, M 안으로 이동했다. M이 없었을 때까지만 해도 A씨가 약속에 갈 방법은 한정되어 있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A씨에게는 오히려 애매한 기술의 발전이 독이 되었었다. 비장애인을 위주로 발전되고 있던 기술들이 A씨는 전혀 반감지 않았다. 10년 전, A씨는 개인용 모빌리티를 타고 인도를 달리던 사람들과 부딪혀 한동안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 당시에 A씨는 인도에서도 빠르게 달리는 물체에 치일까 봐 어딘가에 나가는 일이 불편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인도와 모빌리티를 탈 수</p>	

있는 곳, 도로가 따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안에 내장된 주소 칩이 해당 주행로를 벗어나는 순간 종료가 되게 설정되어있어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 기술이 나오고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모빌리티에 익숙해졌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특히 M의 등장은 A씨에게 정말 달가운 존재였다. 직접 운행할 필요가 없을뿐더러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최적의 경로로 운행을 해주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IS에 연결되어있는 계좌로 내릴 때, 자동이체가 되어 따로 번거롭게 무언가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물건을 들고 이동하기에는 어려운 A씨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C, 반가워.”

가게에 들어서고 약속되어있는 C가 앉아있는 곳까지 안내를 받은 A는 자연스럽게 자리로 이동했다. C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나,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예전 데이터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알 수 있었다.

“안녕, A! 오늘은 오는 데 문제없었지?”

“응, 오늘 괜찮았어?”

“아니, 오늘 오는 데 IoT 신호등이 고장이 난 거야! 한동안 사람을 인식하지 못해서 신호가 바뀌지 않더라고! 물론 오류가 있는 걸 알자마자 안내받은 AI들이 교통도 정리해주고 신호등도 금방 고쳐졌지만 조금 당황스러웠다니까.”

A씨는 최근 들었던 뉴스에서 신호등을 모두 IoT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몇 가지 오류가 있다고 들었던 것이 생각났다. ‘IoT 신호등은 500m 반경에서부터 사람을 인식했는데, 인식하기 전까지는 신호등이 변경되지 않고 사람을 인식한 이후부터 원래대로의 신호를 내보내는 시스템이라고 했었지.’ 그만큼 교통 체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안내가 있었는데, 확실히 이후에 A씨가 교통수단을 타고 거리를 다닐 때 불편함은 많이 줄어들었다. 안그래도 퍼스널 모빌리티가 급하게 늘어나면서 개개인의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에 따른 교통 체증도 증가해 불편함을 느끼던 참이긴 했다.

“그래도, 원래 기술이 들어올 때는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 편이니까.”

“맞아, 아 맞아, 너도 이번에 I-arm 수술 받았다고 했지? 어땠어?”

“응! 뇌파를 사용한 인공지능 팔이라는 게 처음엔 조금 꺼림칙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 아무래도 없던 것보다는 확실히 편하더라고. 가격이 조금 들긴 했지만, 인공눈도 개발하고 있다고 들긴 했어! 아무래도 더 많은 신경망 기술이 사용돼야 하니깐 조금 시행착오가 길긴 하겠지만.”

“맞아,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아직은 가격대가 너무 높더라고. 시행 초기라서 그렇다고는 하던데. 일단은 당장 안 보여도 불편함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깐 다행이지.”

A씨는 지금까지도 비장애인 중심성이었던 기술들이 점차 도시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기술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과 함께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변화되던 순간을 기억한다. 사람들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신호등뿐만 아니라, 불편하게 사용할 수가 없었던 키오스크는 AI로 대체되어 말을 걸기도 직접 주문을 돕기도 했다. 기술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어르신들을 위한 AI도 새로 개발되어 기술을 설명해 주는 I-도우미도 정부 차원에서 도시를 돌아다니곤 했다. 길을 걸을 때도 중간중간 끊겨있던 점자 블록들로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도 주변 사물을 인식하고 길을 안내하는 기술들의 발전으로 어려움을 줄였으며, 휠체어 역시 두 발의 형태로 일어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는 쪽으로 발전되어 왔다.

“아무튼, 정말! 이렇게 너랑 편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로도 요즘은 참 행복하네!”

“응, 정말로! 이런 기술들이 없었다면, 한 번 만나는 것도 큰 부담이 됐을 텐데.”

A씨는 C의 말에 공감하면서도 문득, 관련 기술들이 없어지는 생각을 하곤 했다. 분명 익숙해져 있던 것들의 상실은 크게 다가올 것이고 원래 없었을 때보다 후폭풍이 크게 올 수도 있겠지. 다만 A씨는 그렇다고 해서 기술의 발전이 멈추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분명 사람들은 예전보다는 기술에 의존하게 되겠지만, 기술 혹은 사람과 같이 무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 기술 의존만을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이 발전되고 있는 기술에 대해 무엇이라 말을 하든, A씨는 그저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평범함을 원했다.